

◆ [Focus] 제28차 UN 기후총회 및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

◆ [What's News]

- (미중관계) 美 하원 중국특위, 중국의 PNTR 지위 박탈 권고 예정
- (친환경) 美 재무부의 청정수소 세액공제 지침, 초안 일부 유출
- (경제) 무디스, 中 부동산 침체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 전망
- (규제) 행정부의 디지털 무역 조항 지지 철회에 따른 찬반 양론 심화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

FOCUS

(기후변화) 제28차 UN 기후총회 및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

1. 개요

□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(COP28) 개요

- 제28회 유엔기후 변화협약 총회가 11.30일부터 12.12일까지 UAE 두바이에서 개최, 기후 위기 대응 및 배출량 감축 등 논의 시작

* COP27은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에서 11.6~18일 개최

- 총회는 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1995년 COP1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, 특히 2015년 COP21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기온을 1.5°C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'파리협정' 체결 등이 주요 성과로 지목

-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로 △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및 △전지구적 이행점검(GST)*, △글로벌적응목표(GGA), △기후손실과 피해기금 발족 등 거론, 당사국 간 의견 조율 과정 및 회의 결과에 관심

* 개별 국가들의 노력을 종합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현황 점검

2.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기후 리더십

□ COP28 맞이해 미국의 기후 리더십 및 이니셔티브 강조

- 백악관은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추진 및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회복력 있는 기후 행동 가속화 촉구(12.2)
 - 녹색 기후 기금에 대한 30억 달러 계획 발표 등 화석 연료 의존 완화, 포용적인 경제 성장 및 투자,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청정 모델 제시
 - 특히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, 인프라법(BIL) 등 언급,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1% 감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
 - 차량, 발전소 및 메탄 배출에 대한 환경보호국(EPA) 행정 조치 발표*, 완전한 50~52% 감축을 위한 추가 연방·주·민간 부문 조치를 추진 중
- * Methane Emissions Reduction Action Plan ([링크](#))

<미국의 기후 조치 이니셔티브 주요내용>

-
- 국내 기후 조치 투자가 국내외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증 노력 계속
 - 글로벌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미국 지원 확대, 기후 정보, 조기경보 및 위성 데이터 접근성 확대, 기후 복원력 식품 개발, 민간 추가 자금 모금 등
 - 기후변화 취약 국가 및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해 신규 기금 총 1,750만 달러 발표
 - * 태평양회복력시설 450만 달러, 산티아고 네트워크 250만 달러 등
 - 1.5°C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지구적 기후 행동을 가속화 조치 시행, 재생 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 용량 3배 확대 발표
 - 공공 기후 재정을 95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, 2024년 까지 매년 1,000억 달러 기후 재정 동원을 위한 노력 발표 등
 - 지속가능한경제여성(WISE) 이니셔티브 등 여성 리더십 강화 노력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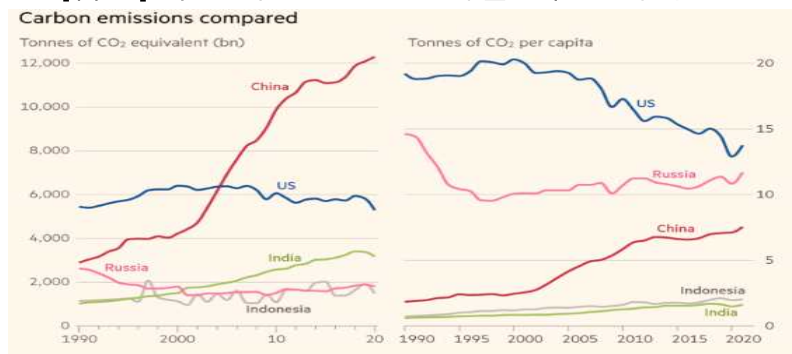
[자료: 백악관 팩트시트]

- 재무부,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 자발적 탄소시장(VCM) 지침 발표(12.4)
 - 1) 금융 기관의 탄소중립 중요성과 가치 강조, 2) 금융 기관의 접근 방식에서 일관성과 신뢰성 촉진, 3) 모범 사례 강조 및 채택 장려 등 기업 간 탄소중립을 위한 9대 금융 및 투자 원칙 발표
- * Principles for Net-Zero Financing & Investment ([링크](#))

3. 관련 주요 현지 보도

- 글로벌 철강 업계는 COP28에서 탄소배출량 측정을 위한 공동원칙 발표
 - 글로벌철강기후위원회, 세계철강협회, 미국 철강제조협회 등 35개 생산업체, 산업단체, 국제기구, 표준제정기관은 공동원칙에 서명
 - 친환경 철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탄소배출 제로에 가까운 철강 생산에 대한 공통의 이해 도달 필요성 인식, 친환경 제품 촉진 노력 추진
 - 범용적인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앞당기기 위해 '독립적인 검증'의 필요성 강조, 연례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 점검 및 모범 사례 공유 약속
- WTO, 탈탄소 가속화를 위한 관세 및 보조금 평가 보고서 발간
 - WTO는 '탄소집약-친환경 제품 간 관세', '화석연료 보조금 개혁' 등 10가지 무역 정책 도구를 통한 정책 제안 보고서 발간
 - 화석연료, 농업, 어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출이 환경 파괴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,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개선과 효과성 평가 언급
- 개발도상국 관계자, 선진국의 기후 정책은 다자주의 '위기' 초래 언급
 - UN 기후 정상회의 내 '무역의 날' 참여 개도국 관계자들은 선진국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접근법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
 - 상품 무역, 환경 보조금 및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대한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무역 조치에 관한 기후 논의에 개도국 이해관계자의 고려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

<참고>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 비교 대시보드>



* 중국은 전 세계 CO₂e 배출량의 28% 차지, 미국, 인도, 러시아, 인니 순
 [자료: Climate Watch, IEA, 파이낸셜타임즈]

| | |
|-------|--|
| 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|
| ■ 자료원 | 백악관(12.2), 재무부(12.4), 인사이드(12.1)(12.2)(12.4), FT(12.3) 등 |

□ [對中] 美 하원 중국특위, 중국의 PNTR 지위 박탈 권고 예정

- (개요) 하원 중국 특별 위원회는 연내 공개될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의 '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'(PNTR) 지위 박탈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
 - 지난 1월 하원 결의에 따라 신설된 중국 특별위는 연말까지 대중 경쟁 관련 △조사 결과 △정책 제안 △입법 제안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 의무
- (효과) PNTR 폐기로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율은 3.5%에서 40%로 급등
 - American Action Forum 조사, PNTR 폐기 시 미국 GDP 손실(-159억 달러), 수출 감소(-17%), 소비자 가격 인상(5.9%) 효과 예상
 - 다만, 중국특위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5년간 점증적으로 관세를 올리고 항공·반도체·핵심 광물 등 전략 물자에 우선할 것을 권고할 전망
- (전망) 중국특위의 권고안을 받아 소관 상임위가 별도 입법 진행 예정
 - 일부 대중 매체가 주장하던 PNTR 폐기가 여야 정치권 담론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, 내년 대선 국면에서 현실화할 가능성 존재

| | |
|-------|---|
| 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|
| ■ 자료원 | 폴리티코프로(12.5), American Action Forum(9.27) |

□ [친환경] 美 재무부의 청정수소 세액공제 지침, 초안 일부 유출

- (개요) 재무부 지침* 발표는 올해 연말에서 내년 3월 이후로 연기(11.15)
 - * 45V production tax credit
 -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 전원을 활용하는 전해조를 통해 생산되어야 하나, 업계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 전원에 천연가스·원자력 포함을 요구
- (상세) IRA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수소 기준은 초안 내 유지
 - \$3/kgH₂ 혜택을 받기 위해 '3년 이내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발전원 (풍력·태양열·기타 청정에너지 시설)을 이용한 수소 생산' 기준 제시

<탄소 배출 강도에 따른 45V 세금 공제>

| 순번 | 배출 강도(kgCO2e/kgH2) | 최대 세금 공제(\$/kgH2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 | 0-0.45 | \$3.00 |
| 2 | 0.45-1.5 | \$1.00 |
| 3 | 1.5-2.5 | \$0.75 |
| 4 | 2.5-4 | \$0.60 |

[자료: 美 에너지부]

○ 재생에너지 사용 증명 기준

- ('27년)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연간 발전량과 수소 전력 생산시설의 연간 전력 소비량 일치 필요
- ('28년)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시간별 발전량과 수소 전력 생산시설의 시간별 전력 소비량 일치 필요

○ (반응) 산업 관계자들, '신규 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' 비판

- 재생에너지의 시간별 전력 생산량은 일정하지 않아, 업계는 기존 생산된 잉여 전력을 저장·활용할 수 있게 월·연 등 장기 기준을 선호
 - * 환경 전문가들은 청정에너지 이외의 전력원 사용 감시를 위해 단기 기준을 선호
- 전기 자동차 등 기타 기후 기술은 수소와 같은 규제가 없어 산업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으로 주장하며, 규제 완화 로비 확대 시사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준성

▪ 자료원 | 블룸버그([12.4](#))

□ [경제] 무디스, 中 부동산 침체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 전망

○ (개요) 무디스, 中 국가신용등급 '안정적'에서 '부정적'으로 하향 조정

- 무디스는 중국 부동산 부문 침체로 인한 지방 정부·국영 기업의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중국 국가신용등급(A1)에 '부정적' 평가
 - * 3대 국가신용등급의 中 국가신용등급 평가 동향: ▲무디스: '17.5월 AA3→A1로 강등, ▲S&P: '17.9월 AA→A+로 강등, ▲피치: '07년 이후 A+ 등급 유지

- (상세) 낮은 중기 경제 성장과 지방 정부 재정 약화를 지적하며, 지방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정부의 대응 필요성 언급
 - (무디스) △기업 차입 급증 △실업률 증가 △가계 소비 위축에 따라, 中 경제 성장률이 '30년 3.8%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('23년 3분기 5.3%)
 - (中 재정부)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해 '부동산 침체에 대응할 지방정부 예산이 충분하며, 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'했음을 강조하며 반박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마민서 |
| ▪ 자료원 | 뉴욕타임스(12.05) 로이터(12.05) |

□ [규제] 행정부의 디지털 무역 조항 지지 철회에 따른 찬반 양론 심화

- (개요) 美 무역대표부(USTR), 디지털 무역 조항 지지 철회 선언(10.25)
 - 디지털 무역 조항은 △국경 간 데이터 이전, △데이터 현지화 금지, △주재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검토를 반대
 - 동 결정은 기술 기업 독점 견제를 위한 행정부·민주당의 승리로도 해석되었으나,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증가해 관심 집중
- (상세) WTO·IPEF 디지털 무역 조항 관련 정책 노선 변경에 따른 기술 산업계,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찬반양론 심화
 - 지지 철회 찬성파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강화의 기회로 주장하는 한편, 반대파는 미국이 디지털 무역 제도를 선도할 기회를 잃은 것으로 우려
 - 일부 현지 언론은 반대 의견의 유의미한 증가로 인해, 디지털 무역 조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가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전망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정연호 |
| ▪ 자료원 | Rollcall(12.5), 폴리티코(10.25) |

Top Headlines

| 언론사 | 주요 보도내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The Wall Street Journal | <p>Job Openings Fell in October to Lowest Since 2021 (’21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10월 신규 일자리)</p> <p>경제 호황을 뒷받침하던 노동시장, ’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냉각의 조짐을 보임. 임금 인상 폭도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</p> |
| The Washington Post | <p>Rep. Patrick McHenry, who briefly served as acting House speaker, will not seek reelection (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, 내년 선거 불출마 예정)</p> <p>3주간 임시 의장직을 맡았던 맥헨리 의원은 재선을 노리지 않을 것이라 밝혀. 2004년부터 선출, 10선 의원인 그는 현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</p> |
| The New York Times | <p>Johnson Plans Vote on Impeachment Inquiry, Predicting Unanimous G.O.P. Support (존슨 의장, 탄핵 조사 표결 추진... 공화당의 만장일치 지지 전망)</p> <p>존슨 하원의장,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 발언. 기존에 공화당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 정식 표결 추진을 미루고 있었던 상황</p> |
| CNN | <p>Tuberville will release holds on some military nominations (튜버빌 상원의원, 일부 군 보직 인준 보류를 풀 것 전망)</p> <p>튜버빌 앨라배마주 상원의원은 군 승진 인사 인준 관련 보류를 풀 것이라 밝혀. 미군의 3성장군 이하에 대한 인준이 진행될 전망</p> |
| USA Today | <p>Israel sweeps into major Gaza city (이스라엘, 가자 지구 대도시 진출)</p> <p>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제2의 도시인 칸유니스에 진출. 이스라엘군은 무장병력과 교전 가졌다고 밝혀.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분쇄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</p> |

* 미국 동부시간 12월 5일 16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 · 통상 일정

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2.5(화) | 11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U.S. services PMI) |
| 12.6(수) | 10월 미국 무역수지(U.S. trade deficit) |
| 12.7(목) | 12월 1주 실업청구건수(Initial jobless claims) |
| 12.8(금) | 11월 미국 실업률(U.S. unemployment rate) |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| 발간번호 | 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 | 발간시기 |
|---------|---|----------|
| US23-32 | 미국 연방정부 배터리 산업 육성 인센티브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 | 2023.11월 |
| US23-31 | 백악관 인공지능(AI)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 동향 | 2023.11월 |
| US23-30 | 2024년 미국 대선 전망,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| 2023.10월 |
| US23-29 | 美 의회 임시 세출 결의 처리 경과 및 향후 섣다운 전망 | 2023.10월 |
| US23-28 | 미국 정부의 대중 투자규제 동향 및 시사점 | 2023.10월 |
| US23-27 | 미국 연방정부 섣다운 가시화 속 현지 반응 분석 | 2023.09월 |
| US23-26 | 신규 회계연도 임박, 美 의회 예산안 입법 동향 | 2023.09월 |
| US23-25 | 2022년 주요국 해외투자 동향(UNCTAD 보고서) | 2023.09월 |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해드림 심층보고서](#))

| 발간번호 | 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 | 발간시기 |
|-----------|--|----------|
| GMR23-026 | 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,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 | 2023.09월 |
| US22-기획7 |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| 2023.01월 |
| US22-기획6 |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| 2022.12월 |
| US22-기획5 |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| 2022.12월 |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| 인터뷰번호 | 제목 | 바로가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코인시-14 (2023.6.30) |  <p>전미자동차연구센터(CAR) '앨런 아미야'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</p> |  |
| 코인시-13 (2023.6.26) |  <p>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'켄달 스투리버'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!</p> |  |